

장흥군, 투자유치 활성화 박차

전남개발공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 체결 2026년까지 산단 분양률 80% 달성·3000개 일자리 창출

장흥군이 관내 산업단지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늘려 지역 먹거리 산업을 확대해 인구 증가에 힘을 보탠다. 장흥군은 전남개발공사와 광양만권경제자유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김성 장흥군수,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왼쪽부터)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역청 등과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상생발전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장흥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투자희망기업 관련 정보 교류,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산업단지 분양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단지 분양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3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산업단지 분양률 제고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준 전남개발공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감사드린다"며 "산단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장애인 자립지원 대상자 첫 입주 군, 임대주택·가구·가전 등 지원...대상자 발굴 계속

화순군은 지난달 30일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1호 대상자가 자립주택에 입주해 독립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자체 주도형으로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1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해 장애인 자립 중심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화순군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지역사회자립지원 1호 대상자에게 자립주택 열쇠를 전달하고 있다.

화순군은 거주시설 및 소대기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화순군 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하였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물품 등을 지원했다.

1호 입주자는 "그동안 꿈꾸어 왔던 자립이 현실이 되었다"며 "이번 입주로 본인의 꿈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요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입소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며 올해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희

망하는 장애인은 자립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자립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379-3267, 375-9120-1)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마을버스' 이름 지어주세요

읍·면 소재지~자연마을 노선 10일까지 접수 민선 8기 대중교통 개편... 7월 15일승 도입

나주시가 민선 8기 대중교통 개편에 따라 도입 예정인 '마을버스' 명칭을 공모한다.

나주시는 마을버스(15인승) 사전 홍보 강화와 시민 참여 시정의 일환으로 마을버스 명칭을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나주시 대중교통 혁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대중교통 편익을 최우선한 수요자 중심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 비효율적 노선의 개편을 통해 매년 지급돼온 운수회사 손실보조금 지원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마을택시를 연결하는 효율적 노선 체계 구축, 마을택시 확대, 간선(광주) 노선 정비, 급행버스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중 '마을버스'는 공차율이 높은 시내버스를

대신해 읍·면 소재지에서 자연마을을 순환하면서 운행할 계획이다.

명칭 공모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내달 10일까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 시청(3층)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나주시 시청길22 교통행정과) 또는 이메일(reaething12@korea.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2월 중 평가위원회의 응모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1명·50만원), 우수(1명·30만원), 장려(1명·20만원)작에 대해 나주시상품권을 시상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강진청자축제 '먹거리타운' 입점자 모집

일반음식점 3개소·분식 1개소...3일까지 접수

강진군이 제5회 강진청자축제 '강진음식 먹거리타운' 입점자를 모집한다.

군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겨울축제이자 코로나 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축제인 만큼, 음식 부스 운영과 참가업체 모집, 메뉴 선정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음식점 3개소, 분식취급업소 1개소를 모집하며, 강진군 관내·외 지역제한 없이 접수를 받는다. 겨울철 관광객들의 입맛을 잡아 메뉴와 황제리면, 떡볶이, 어묵 등 MZ세대들을 겨냥한 메뉴에 우선순위를 둘 예정이다.

입점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는 부스임대료 120만 원을 강진군축제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군에서는 강진청자축제 개최 이래 최초로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그릇(쟁반, 5구찬기, 공기)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메뉴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일까지로 (사)한국외식업강진군지부 사무실 또는 강진군 문화관광실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강진군청 식품위생팀(061-430-3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보건소 '불소양치용액' 무료 배부

화·목요일 신분증 지참 방문 수령

나주시가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불소용액을 무료로 배부한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추진된다.

보건소는 만 3세 이상부터 전 세대에 불화나트륨 0.05%농도 가글 용액을 무료로 배부하고 하루 1회 꾸준한 양치를 권장하고 있다.

불소 가글 용액은 시민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2동 구강교육실(2층)을 매주 화, 목요일에 우선 예약 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불소는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고 구강 내 충치균 등에 의해 형성되는 산으로부터 치아표면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불소 막을 형성해 세균의 효소 작용을 억제하며 이가 시린 증상을 완화해준다.

사용 방법은 먼저 칫솔로 입안 구석구석을 양치한 후 10ml정도 불소 용액을 입에 머금고 가글 후 뱉으면 된다.

가글 후 30분에서 1시간은 불소 성분의 치아표면 흡수를 위해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군비 추가...200여 아동에

담양군이 민간어린이집 원아 간식비를 지원한다.

민간어린이집 원아 간식비 지원사업은 인건비가 미지원되는 시설 7개소 아동의 양질의 식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간식 제공에 대한 현장의 요구사항 검토 및 물가 상승을 반영, 기존 보조금 외에 군비를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민간어린이집 200여명

아동에게 지원, 재원 아동의 건강한 발육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담양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표에 따라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친환경 식재료의 비중을 높이는 등 아동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나은 보육 환경을 조성해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화순군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화순군이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란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스마트밴드(손목 활동량계)를 이용해 6개월간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경험이 없는 신규 대상자로서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5가지 건강위험요인을 많이 보유한 자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이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스마트밴드(활동

량계 등)를 무상으로 지급받게 되고, 6개월(24주) 동안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문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으로부터 개인별 식습관과 운동 상담 등 원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과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379-5370)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배영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군-농협-KT, 스마트 농업 발전 '맞손'

업무협약 체결

장성군은 지난달 31일 NH(엔에이치)농협은행 장성군지부, KT(케이티)전남전북고객본부가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장충모 지부장, 김진철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스마트 농업은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스마

트 팜에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 시스템이다. 장성지역에 조성된 스마트 팜은 52개소 22ha 규모로 딸기, 포도, 토마토, 새싹삼 등 다양한 작물을 길러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시설이 농촌에 구축되면 스마트 팜 확대는 물론 도난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농촌 통신 복지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산지 유통 조직화, 정보통신기술(CT)

및 무인환경관리시스템 지원도 협력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농촌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와 선진화 기반 마련의 첫걸음이 될 바란다"면서 "스마트 팜 확산을 꾸준히 지원해 미래 농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올해 27억 4000만 원 규모로 스마트 팜 기반 조성에 관한 10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시설원에 현대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신소득 레몬 특화단지 조성 등에 나선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노인복지 예산 580억 편성

독거노인 AI반려로봇 사업·요양시설 CCTV설치 지원 일자리 11.3% 늘리고 중증장애인 응급장비 설치 확대

함평군이 올해 노인복지 예산 580억 원을 편성,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먼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 AI반려로봇 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기초연금기 전년대비 5.1% 인상됨에 따라 노인 1인가구는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만7080원을 지급 받는다.

경로당 지원도 확대한다. 경로당 회장을 지역 봉사지원으로 위촉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수행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응급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한다. 어르

신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1.3% 증가한 1670명에게 노인일자리 제공한다

경로식당을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하고, 감염병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해 영양섭취를 돕는다.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년대비 10만원 증가된 20만원을 지원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